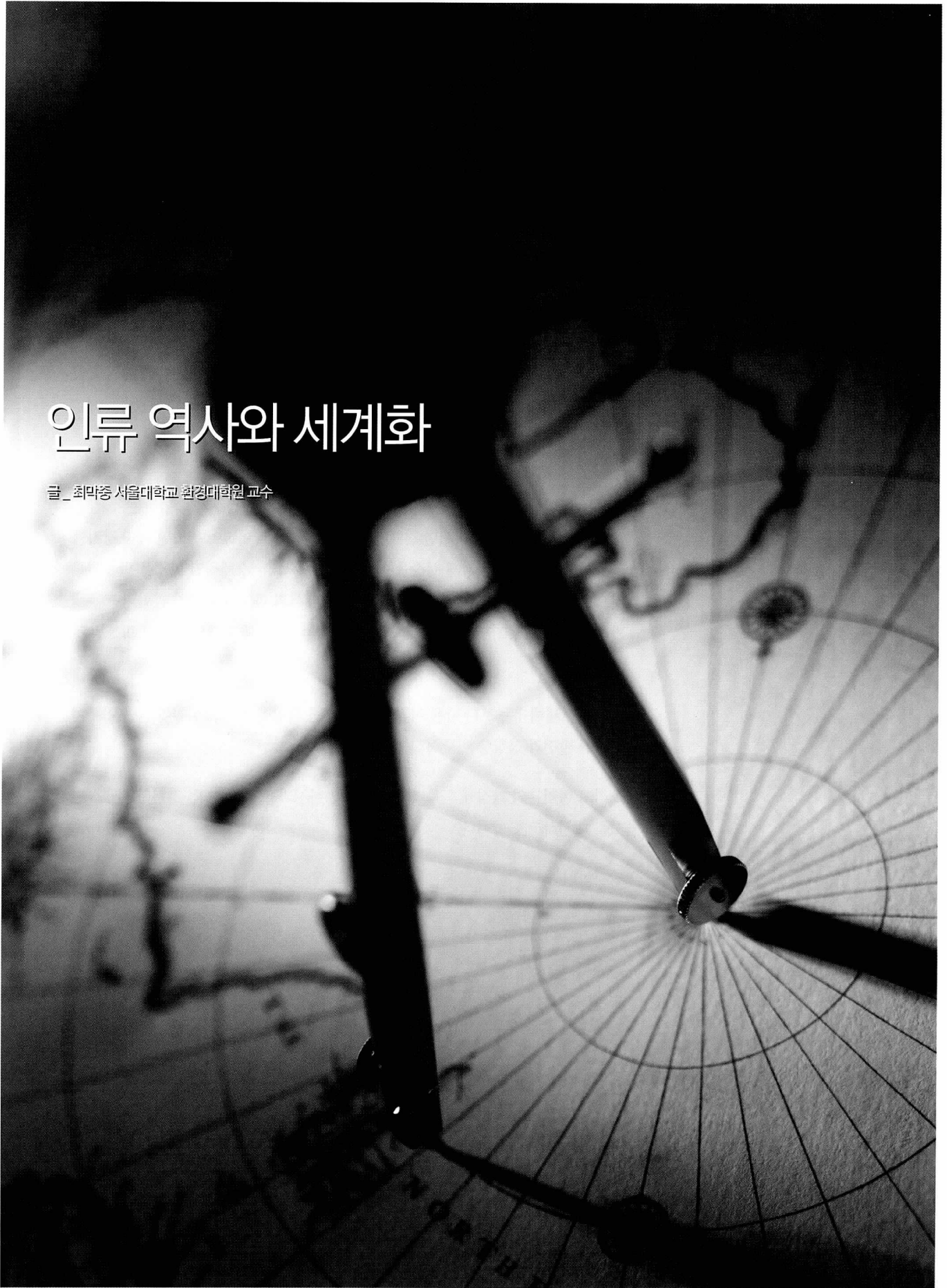


인류 역사와 세계화

글_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세계화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정도의 차이는 있었더라도 인류 역사의 진보와 함께한 보편적이고 일관된 시대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폐쇄되어 있던 세계 각 지역이 외부에 개방되고, 고립되어 있던 세계 각 지역이 통합되는 의미의 세계화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이나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 건설·십자군 전쟁 등에 따른 동서 문물의 교류에서도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동방에, 그리고 서역에 그동안 서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있고 그곳과의 교류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풍요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곧 세계화의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연결한 실크로드는 초기 세계화 과정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오스만투르크에 의해 육로 실크로드가 막히자 세계는 해상을 통한 바닷길을 개척하기 시작한다. 동쪽에서는 중국 명나라의 정화(鄭和) 함대가 동남 아시아와 인도를 거쳐 아프리카 대륙의 동안(東岸)까지 진출하고, 뒤를 이어 서쪽의 유럽 제국(諸國)에서는 인도의 향신료 등을 찾아 동방으로의 바닷길 개척에 나선 것이다. 이와중에 흔히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일컫어지는 신대륙의 발견과 함께 그동안 유라시아 대륙에 머물러 있던 세계화는 말 그대로 범지구적 차원의 세계화로 이어진다.

이후 세계화는 포르투갈·스페인·네덜란드·프랑스·영국이 순차적으로 주도하는 식민지 패권주의로 나타나고, 이들에 비해 국가 통합이 늦었던 독일·이탈리아 등이 이에 도전하면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치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갈라지는 세계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이에 더하여 전후 미·소 냉전 시기의 지구촌은 정치·경제 이데올로기에 따라 분할된다. 그리고 구(舊)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자본주의의 역사 경험적 승리가 확인되면서 또다시 지구촌은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자본을 필두로 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통합과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날의 세계화가 군마(軍馬)와 창검, 그리고 총·대포와 군함을 앞세운 무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의 세계화는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는 무엇보다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이동으로 특징 지어지며, 이에 따라 영토를 초월한 국제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이 세계화의 지향점이 되고 있다.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새로운 경제 기회를 좇아 지구촌 곳곳을 찾는 동기에는 변함이 없다. 자본은 무력에 비해 이동 속도가 빠르다. 과거 군마와 창검·총·대포와 군함을 이동시키는 데는 몇 달, 몇 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자본은 손가락 하나로는 짹 짹 사이에 수천·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다. 자본은 무게와 부피가 나가지 않는 Zero-weight 무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세계화의 속도와 범위도 그만큼 빨라지고 넓어졌다. 무력을 앞세운 침략 전쟁은 공격하는 측에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고, 방어하는 측도 어느 정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어느 한 곳에 무력이 집중되면 다른 곳은 일정 기간 소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의 투자와 회수는 지구촌 구석 구석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숨가쁜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듯 그 형태는 변해왔더라도 세계화는 인류 역사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진행되어온 거역할 수 없는 추세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화에 누가 어떻게 빨리 적응하느냐의 여부다. 즉, 세계화는 좋은 싫든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